

韩汉对照

第二版

어린 왕자 小王子

安东尼·德·圣埃克苏佩里 [法] 著

李岩 徐智 译注

東華大學出版社



韩汉对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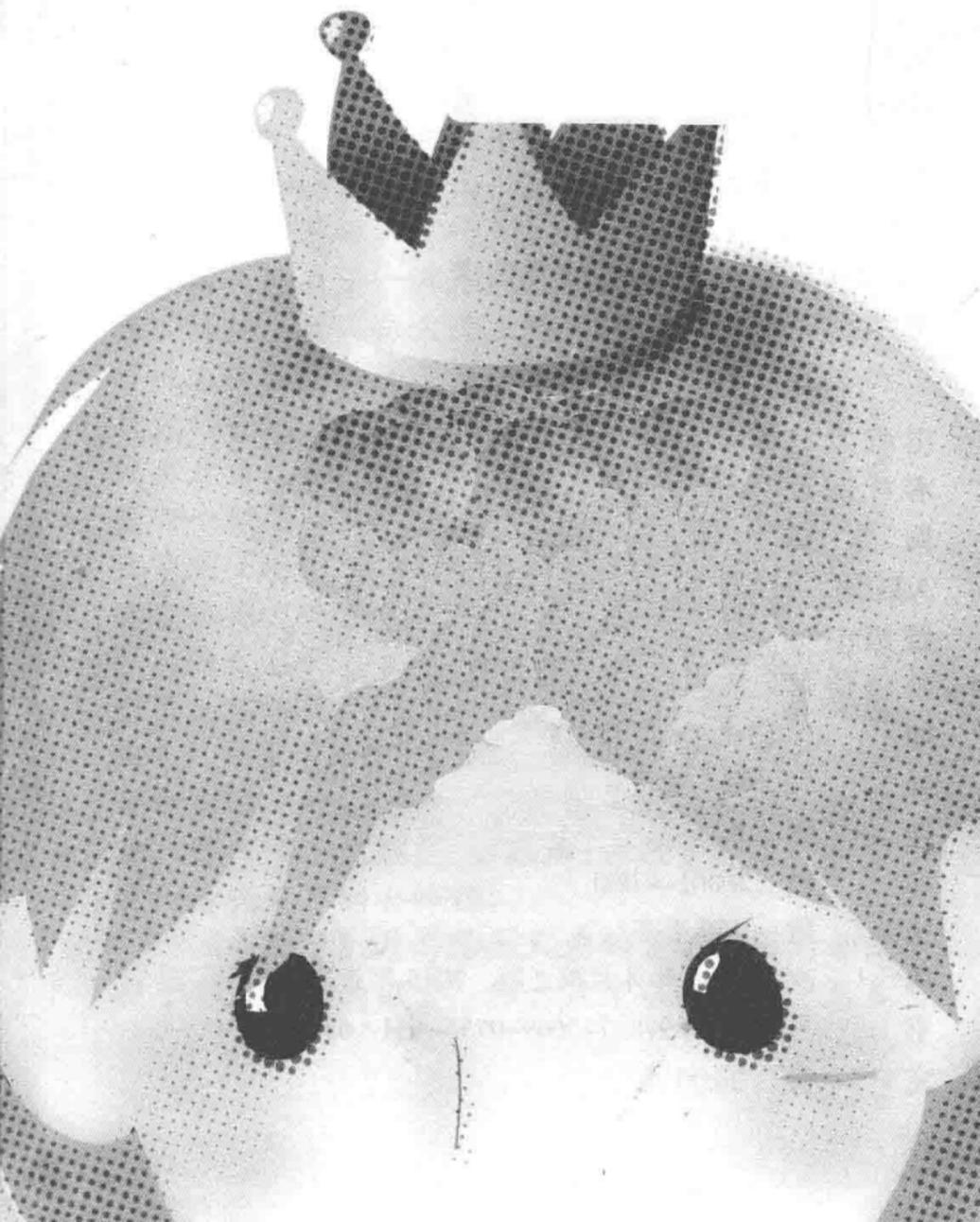
第二版

어린 왕자 小王子

安东尼·德·圣埃克苏佩里 [法] 著

李岩 徐智 译注

東華大學出版社·上海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小王子：韩汉对照 / [法] 安东尼·德·圣埃克苏佩里著；李岩，徐智译。—2版。—上海：东华大学出版社，2015.4

ISBN 978-7-5669-0755-4

I. ①小… II. ①圣… ②李… ③徐…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童话—法国—现代 IV. ① H559.4: I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5) 第 066280 号

责任编辑 沈 衡

封面设计 杨 军 潘志远

小王子

[法] 安东尼·德·圣埃克苏佩里 著

李岩 徐智 译注

出版发行 东华大学出版社 (上海市延安西路 1882 号, 200051)

本社网址 <http://www.dhupress.net>

淘宝店 <http://dhupress.taobao.com>

天猫旗舰店 <http://dhdx.tmall.com>

营销中心 021-62193056 62373056 62379558

投稿邮箱 83808989@qq.com

印 刷 苏州望电印刷有限公司

开 本 787 mm × 960 mm 1/32

印 张 6.5

印 数 0 001~4 000

字 数 150 千字

版 次 2015 年 4 月第 2 版 2015 年 4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69-0755-4/H · 637

定 价 20.00 元

序·小王子的故事

“给我画一只绵羊吧！”那天夜里，小王子就是这样向那个被迫在荒凉孤寂的沙漠里睡觉的飞行员发出请求的。他娇弱、善良，喜欢提无穷无尽的天真问题，被人说中心事的时候会羞红脸，生气的时候会晃动一头金黄色的头发。他来自B612——一个不点大的小游星，在那儿，他有两座活火山和一座死火山，每天最惬意的事情是拉着椅子追寻落日，有一天，他看了43回日落呢！再以后，他有了一株不同凡响的花，他待她真好啊，给她水喝，每天晚上还拿玻璃罩子罩着她，可他太年轻了，还不懂得怎么爱她，猜不透隐藏在她那些伎俩贫乏的诡计后面的一片柔情，于是他离开自己的家，游历了许许多多星星，那些星星都小极了，上面住着些古怪到家的大人。后来他来到了地球，收留了一头渴望被驯养的狐狸，它告诉他一个秘密：人只能用心灵去观看！

他最后的日子给了寂寞的飞行员，他惦记着自己的玫瑰花，可躯体太重了，路途遥远，带不走它。一个晚上，他走了，金黄色的毒蛇帮了他。他带走了飞行员为他画的箱子里的绵羊，作为礼物，留下了5亿颗星星，它们像极了一串一串会发出清脆笑声的小铃铛……

《小王子》是写给大人看的童话，用的却是孩子都看得懂的语言。那份孩子家的稚气，天真

透了的逻辑，最原始的哲学，还有淡淡的孤寂、忧愁，再配上独具情趣的插图（那可是作者在1942年纽约那个酷热难耐的夏天整夜整夜工作绘出的），半个世纪以来如清风甘泉般拨动了无数人的心弦。

1942年那个炎热的夏天，作者把自己关在妻子康素罗（她没准儿正是小王子那朵娇滴滴可又喜欢闹别扭的玫瑰花的原型呢）寻来的“大白房子”里埋头工作，第二年的4月6日作品在纽约正式出版。当时的评论界反应冷淡，不过时至今日，《小王子》被公认是20世纪最有影响的一篇童话，它的读者遍布世界，2000年6月29日，在作者百年诞辰的日子里，法国里昂机场被更名为圣埃克苏佩里-里昂机场，这也是世界上唯一一个用作家名字命名的飞机场。

有必要交待一下《小王子》作者的最后归宿，本书出版后一周，作者登上了前往北非的美国军舰，随身带着出版商特地为他印刷的一部样书——这也是他见到的唯一一部《小王子》。不久，圣埃克苏佩里重回蓝天，多次执行空中侦察任务，1944年7月31日，他驾机执行自己的第九次飞行任务，就此一去不返，这位有着传奇经历的杰出飞行员兼作家，竟跟自己笔下的小王子一样，忽然消失得无影无踪，这个谜直到今天仍未破解。

考虑到作者的传奇身世与写作时所处的波诡云谲的年代，人们本可以从《小王子》里觅得太多的隐喻与联想，然而这一切探寻都显得多余，

我们只需要知道，曾经有过那么一个人，他是个飞行员，平素大大咧咧不修边幅，习惯了靠星辰来调节生活，可他却柔情似水地写出了这样一部动人的童话，替那些麻木乖戾的大人们打开了如此不同的一个世界：纯真、善良、充满了希望与憧憬。别忘了，那个傻兮兮的大个子老在替大人们叹息：“选择在这个星球真是绝对疯了！只有在夜里，当居民睡觉时，它才显得可亲。”

本书采用韩汉对照，对生词和疑难语法进行注释的形式出版，并配以精美的插图。读者既可以通过阅读增加词汇量，也可以陶冶情操，增长见识，增加生活的情趣。

金戈、杨丹、明焰、张卓立，著名的中法文化交流站点 SinoFrance.ORG 的顾东东及相关版主对本书的出版提供了许多帮助，谨在此向他们致以衷心的感谢。

由于我们的经验不足，译文因作者的水平有限不能做到尽善尽美。纰漏之处，敬请斧正，我们将在图书重印时，予以完善。

译者

2015年4月

차례

目录



제 1 장	4
第一章	5
제 2 장	10
第二章	11
제 3 장	20
第三章	21
제 4 장	26
第四章	27
제 5 장	36
第五章	37
제 6 장	44
第六章	45
제 7 장	48
第七章	49
제 8 장	58

第八章	59
제 9 장	68
第九章	69
제 10 장	74
第十章	75
제 11 장	88
第十一章	89
제 12 장	92
第十二章	93
제 13 장	96
第十三章	97
제 14 장	106
第十四章	107
제 15 장	114
第十五章	115
제 16 장	124
第十六章	125
제 17 장	128
第十七章	129
제 18 장	136





第十八章 137

제 19 장 138

第十九章 139

제 20 장 140

第二十章 141

제 21 장 144

第二十一章 145



제 22 장 158

第二十二章 159

제 23 장 162

第二十三章 163

제 24 장 164

第二十四章 165

제 25 장 172

第二十五章 173



제 26 장 182

第二十六章 183

제 27 장 196

第二十七章 197



这是一部关于生命和生活的寓言

“这就象花一样。如果你爱上了一朵生长在一颗星星上的花，那么夜间，你看着天空就感到甜蜜愉快，所有的星星上都好象开着花。”

어린 왕자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¹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지금 이 어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²며 추위에 떨³고 있다. 이 어른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들도 부족하다면, 지금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뜨에게

¹ 바치다 献, 奉献

² 굶주리다 挨饿, 饥寒交迫

³ 추위에 떨다 受冻

小王子

我请孩子们原谅我把这本书献给了一个大人。我有一个很重要的理由：这个大人是我在世界上最好的朋友。我还有另一个理由：这个大人他什么都能懂，甚至给孩子们写的书他也能懂。我还有第三个理由：这个大人住在法国，他在那里挨饿、受冻。他很需要安慰。如果这些理由还不够的话，那么我愿意把这本书献给儿童时代的这个大人。所有的大人都曾经是个孩子。（可惜，只有很少的一些大人记得这一点。）因此，我就把献词改为：

献给还是小男孩时的列翁·维尔特

제 1 장

내 나이 여섯 살 적에, 한번은 체험담이라는 처녀림¹에 관한 책에서 멋있는 그림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²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³ 삼킨다. 그런 다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여섯 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여러 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 내었다.

나의 그림 제 1 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⁴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¹ 처녀림 处女林, 原始森林

² 보아뱀 Boa, 蟒蛇

³ 통째로 囫圇, 全部, 整个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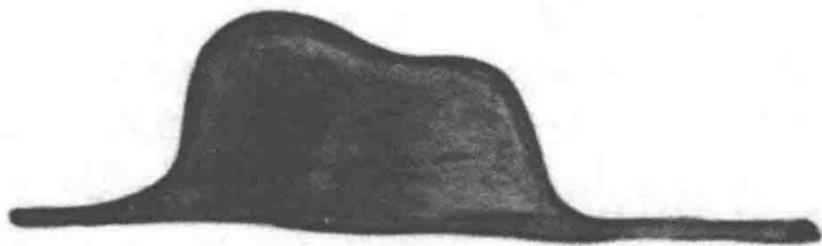
⁴ 걸작 杰作

第一章

当我还只有六岁的时候，在一本描写原始森林的
名叫《真实的故事》的书中，看到了一副精彩的插画。

画的是一条蟒蛇正在吞食一只大野兽。

这本书中写道：“这些蟒蛇把它们的猎获物不加
咀嚼地囫圇吞下，尔后就不能再动弹了；它们就在长
长的六个月的睡眠中消化这些食物。”我看过那幅画
之后，对丛林中的奇遇想得很多，于是，我也用彩色
铅笔画出了我的第一副图画。



我的第一号作品。它是这样的：

我把我的这副杰作拿给大人看，我问他们我的画
是不是让他们害怕。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다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 2호는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¹고, 차라리 지리나 산수, 역사, 문법에 재미를 붙여 보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여섯 살 적에 화가라고 하는 멋진 작업을 포기했다. 나는 내 그림

제 1호와 제 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²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 때마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 주자니 어린애에겐 힘겨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비행기 조종³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제법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그 덕분에 나는 한 번씩 보아도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⁴을 때 지리는 매우 편리하다.

¹ 집어치우다 收拾, 拾掇

² 기가 죽다 泄气, 萎靡不振

³ 조종 操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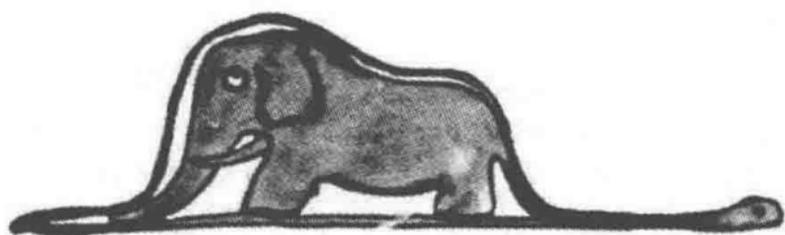
⁴ 길을 잃다 迷路

他们回答我说：“一顶帽子有什么可怕的？”

我画的不是帽子，是一条巨蟒在消化着一头大象。

于是我又把巨蟒肚子里的情况画了出来，以便让大人们能够看懂。

这些大人总是需要解释。我的第二号作品是这样的：



大人们劝我把这些画着开着肚皮也好，闭上肚皮也好的蟒蛇的图画放到一边，还是把兴趣放在地理、算术、历史、语法上。就这样，在六岁的那年，我就放弃了当画家这一美好的职业。我的第一号、第二号作品的不成功，使我泄了气。这些大人们，靠他们自己什么也弄不懂，还得老是不不断地给他们作解释，这真叫孩子们腻味。

后来，我只好选择了另外一个职业，我学会了开飞机，世界各地差不多都飞到过。的确，地理学帮了很大的忙。我一眼就能分辨出中国和亚里桑那。要夜里迷失了航向，地理是很有用的。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착실한¹ 사람들을 많이 만나 자주자주 접촉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²고 다니던 내 그림 제 1 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 이런 대답이었다.

'그건 모자로군요.'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처녀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 들을 수 있는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넥타이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분별³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 하는 것이었다.

¹ 착실하다 扎实, 踏实, 认真

² 품다 怀揣, 胸怀, 藏

³ 분별 辨别, 识辩力